

2014 지식정보학부 소식지

그림비

'그림비'는 순우리말로 청년, 젊은이입니다

여는글

2014년 『그림비』 발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학부의 2014년도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림비』의 여는 글에 어떤 내용을 담을 지를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호에는 가드너(H.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에 대해 얘기하면 좋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중지능이론에서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지능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언어’,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음악’, ‘대인관계’, ‘자기이해’, ‘자연탐구’ 지능이 속합니다. 그리고 8가지 지능이 모두 뛰어나야만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누구나 어떤 지능에는 강하지만, 다른 지능에는 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즉, 8가지 지능이 모두 뛰어나도록 열심히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못해도 운동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은 참 서툰데 동물을 잘 키우는 사람이 있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주목하는 지능은 ‘자기이해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입니다. 저는 자기이해나 대인관계와 같은 부분이 개인의 성격인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지능’이고, 노력한다면 이러한 지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이해 지능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잘 알아차리고 다독여서, 자신의 감정이나 신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이해 지능을 향상시키는 출발점은 자신의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 도착점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이해 능력은 자기표현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아예 표현하지 않는다면 ‘화병’이 생길 수 있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출한다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불편한 감정을 더욱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지능’은 다른 사람의 의도나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회적 지능’이라고도 하고, 속칭 ‘눈치’라고도 합니다. ‘눈치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이라면 대인관계 지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는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분명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때 상대방도 똑같은 입장에 놓여있었고, 역시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억울한 마음만큼, 상대방의 억울한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겠지요.

이 두 가지 능력을 자신의 스펙으로 내놓을 수 있다면, 내적으로는 건강하게, 외적으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부장으로서 우리 학부 학생들에게 이들 지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며,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나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정보학부장
박지영

내림비치

'내림비치'는 순우리말로 '목차'를 뜻합니다

여는글 1

1학기 롤링페이퍼 4

지정소식

끝은 새로운 시작, '지정인의 밤' 8

봄바람 휘날리며, 신나는 연합MT 10

지정의 역습 12

지식정보학부 답사갔어요! 14

지樂퍼樂 회장단의 1년 16

제 32대 학생회 '평생지기' 회장단 인터뷰 18

집부이야기 20

지정인사진 | 24

지정인소식

마블챌린저란 무엇인가!? 26

마음먹었을 때 고민하지말고 떠나라 28

서포터즈,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 30

아이디어를 펼쳐라! 젊은이들이여 32

우리들의 작은가게 34

특집기사

지정인 설문 36

취업Zone

사서직 공무원 특강 38

지식정보학부 취업경진대회가 열리다 39

취업준비, 대학도서관 사서 도전 41

지정인사진 || 42

2학기 롤링페이퍼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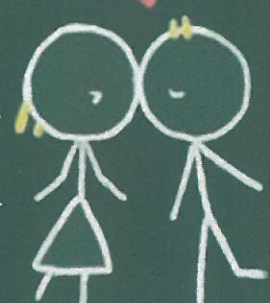
발행후기 48

리뷰! 페이퍼 ☆

- 141401 **강주영** 공부를 많이 해서 당황했고 애들이 다 좋아서 잘 적응해가는 것 같다.
- 141402 **김락근** 즐겁고 앞으로 4년 동안 괜찮을 것 같아요.
- 141403 **김명덕** 대학에 들어가면 과제마저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일주일도 안 되어서 깨달았다. 그래도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밌다.
- 141404 **김백영**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갈 길이 머네요. 고등학생 때보단 그래도 시간표가 더 편해서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141405 **김선욱**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만 늦지 않게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집부와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 할 생각이다.
- 141406 **김유정**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스스로 시간을 조율하고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어색하다. 익숙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한편으론 벌써 새내기가 된 지 오래인 것 같기도 한, 오묘한 기분이다.
- 141407 **김은숙**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하긴 한데 대학이라 자유롭고 재밌어요.
- 141408 **김정원**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듣는 첫 수업들이 굉장히 어색했었다. 일주일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많다.
- 141409 **김준호** 아직은 실감이 안 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1학년이니 열심히 놀 것이다.
- 1414010 **김치영** 생각한 것 보다 너무 재밌습니다. 앞으로도 친구들과 더 재밌게 지내고 싶어요!
- 1414011 **나경주** 스무 살 같은 맘으로 두근거리는 대학 생활 보내겠습니다당~^^
- 1414012 **남은경**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ㅋㅋ 그래도 동기들이랑 선배님들이 정말 잘해주셔서 즐거워요ㅎㅎ!
- 1414013 **민재진** 처음에는 많이 낯설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재밌고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기대된다.
- 1414014 **박상혁** 새내기가 돼서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가 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1414015 **박은주** 처음에 모르는 애들이 많아서 걱정되었지만 친구들을 사귀고 친하게 지내게 되어 다행이다. 생각보다 대학생활이 힘들지만 열심히 참여할 생각이다.
- 1414016 **박지은** 시간표를 짜보는 등 새로운 일들이 많아서 되게 익숙지 않고 하지만 1학년 때 가졌던 마음가짐들을 4학년까지 가져갈 수 있기를...
- 1414017 **성동현** 도촬부에 꼭 들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네요. 그렇다 해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장학금도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하는 등 여러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 1414018 **성하림** 부른 기대감을 가슴 깊이 끌어안고 한성대학교의 새내기가 되니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분 좋은 설렘과 떨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좋습니다.
- 1414019 **송령신** 고등학교에서 고생하다가 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어 기분이 좋고 앞으로 즐거운 학교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1414020 **안성흠** 아직 학기 초라 어색한 것도 있지만 점점 적응되어 가는 것 같다. 앞으로 더 기대된다.
- 1414021 **오지훈**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긴 한데, 점차 편해지고 있다. 시간표가 좀 맘에 안 들긴 하지만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것 같다.
- 1414022 **우다연** 재밌는데 피곤해요. 뭘 입지 뭘 먹지 공장 시간에 뭘 할지 하루 종일 고민이에요ㅜㅜ
- 1414023 **유현석** 평소에 꿈도 못 꾸던 대학인데 다니게 돼서 기분 좋고 집도 가까워서 편하다. 재수를 해서 친구 없는 거는 함정.
- 1414024 **유혜민** 이제 갓 새내기가 되어서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생활 열심히 할 것이고 장학금 꼭 받고 싶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 1414025 **윤기연** 피곤하다. 집이 멀어서 남들보다 2배가 피곤하다. 그래도 학교생활이 재밌어서 견딜 만하다.

1+1=2
3x6=18

- 1414026 **윤지훈** 학교가 멀어지는 등 여러 변화가 많지만 어떻게든 적응해서 잘 지내고 싶다. 다행히 주변 모두 좋은 사람들 같고 나는 맘 편히 지내고 싶는데 잘 됐다.
- 1414027 **이나마** 통학하는데 두 시간이 걸려서 학교오고가기가 많이 힘들지만 차차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다.
- 1414028 **이민기** 아직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적응이 되는 것 같아서 기쁘다.
- 1414029 **이재석** 처음에는 긴장해서 앞뒤구분도 못했지만 지금은 편하고 좋다. 금요일 5시간 공강이 정말 좋다.
- 1414030 **이정민** 새내기가 돼서 설렘과 두려움이 있지만 재밌게 생활하고 싶어요! 편집부원이 돼서 예쁘게 기사 쓰겠습니다.
- 1414031 **이정윤** 아직 일주일 밖에 안됐고 모임도 잘 안가서 많은 친구를 다 사귀지 못해서 아쉽고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 1414032 **이지민** 아직은 얼떨떨하다. 아직 첫 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 몸이 느끼기엔 1학기는 다 끝난 것 같다.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처음 겪어보는 공강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얼른 익숙해지고 싶다.
- 1414033 **이지아** 친구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어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 1414034 **임지숙**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라 장학금은 무리더라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재수강만큼은 면해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활동도 열심히 하긴 할 겁니다.
- 1414035 **정기영** 학교생활이 너무 즐겁다. 동기들과 선배님들이 모두 좋고 계속해서 이렇게 재밌게 학교생활 하고 싶다.
- 1414036 **정아민** 친구들도 재밌고 대학생활도 너무 신기해서 좋아요. 특히 하림,혜진,나라,지은,주영,아영,우리반,선배님들도 좋아요♡
- 1414037 **정우호** 처음에는 아싸 될까 걱정도 했지만 금새 친구들과 사귀고 강의도 만족한다.
- 1414038 **정은음** 정모 때 못 와서 아웃사이더가 될까봐 걱정됐지만 동기들과 선배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즐거운 대학생활이 기대된다.^o^
- 1414039 **조현호** 음 대학교를 들어오면서 로망을 한 품에 안고 들어왔지만 그런 로망은 삼일 만에 사라지고 힘든 생활의 연속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친구들, 선배들이 다 정말 친절하고 착하고 좋아서 학교생활이 재밌는 거 같다!^^
- 1414040 **진세훈** 모르는 게 많아서 아직 어색하지만, 동기들과 선배님들도 잘해주시고 좋은 친구들도 많아서 재밌습니다.
- 1414041 **최선아** 벌써부터 학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조금 아쉬운 기분이다. 그래도 처음 가졌던 의지를 계속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란다.
- 1414042 **최영진** 고등학교와 다른 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가 됩니다.
- 1414043 **최종혁** 새내기가 된지 몇 주가 지났지만 이지도 새롭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정말 재미있는 학교생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1414044 **최희정** 선배님들과 친구들이 모두 친절해서 즐거운 대학생활이 될 것 같아요~♡.♡
- 1414045 **한다연**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는데, 적응한 후에는 너무 재밌다.
- 1414046 **황수정** 단독도 안 들어가 있었고 모르는 애들이 많았기에 걱정됐지만 친구들이 다 착해서 정말 다행이다. 수업이 많아서 헛갈리겠지만 열심히 노트하며 공부할 생각이다.♡3♡
- 1414047 **황아영** 아직은 자유로운 생활에 어색한 느낌이 들지만, 좋은 친구들과 선배님들을 만나서 좋다. 통학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
- 1414048 **김민규** 새로운 생활을 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는데 직접 와서 만나보니까 다들 너무 좋고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기대된다.
- 1414049 **김수진** 대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했다. 직접 와서 교수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서 재밌고 기대가 된다.
- 1414050 **김예지** 대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기대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다. 기대한 만큼 좋은 언니, 오빠,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 좋았다. 앞으로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
- 1414051 **김예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는데 동기들 모두 착하고 좋아서 재밌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다.



끝은 새로운 시작, '지정인의 밤'



조인숙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

2013년 11월 28일, 미래관 DLC에서 지정인의 밤이 열렸다. 지정인의 밤은 지식정보학부(이하 지정과) 교수님들, 졸업생들, 학우들 및 지정과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한 해를 같이 마무리하는 행사이다. 한 해에 한 번 열리고 교수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다. 이 날 지정인의 밤은 정년퇴임을 하신 조인숙 교수님을 위한 자리, 31대 학생회 소개 및 공연, 그리고 뒷풀이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정인의 밤은 사회를 맡은 이형근(09학번), 윤아영(12학번), 이청수(12학번) 학우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지정인의 밤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년퇴임을 하신 조인숙 교수님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조인숙 교수님은 1991년도 2학기에 교편을 잡으셨고, 2013년도 2학기를 끝으로 22년간의 교육자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셨다. 조인숙 교수님은 강단에 올라가셔서 그동안 교직생활을 하셨던 경험을 얘기하시며 지정인들에게 작별인사를 하셨다. 지정인들은 조인숙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그동안의 가르침에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읽어드리고 '스승의 은혜'를 교수님께 불러드리며 아쉬운 인사를 올렸다. 또한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으로 30대 지식IN 학생회 임원들의 회계보고와 마무리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31대 지樂퍼樂 학생회(이하 31대 학생회) 회장단의 소개와 각 국의 국장, 부국장들이 각자의 각오를 외치며 인사를 올렸다.



조인숙
교수님과
단체 사진!

이어서 31대 학생회는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며 지정인들에게 작은 공연을 보여주었다. 31대 학생회 모두가 가사에 마음을 담아 GOD의 '춧불하나'를 합창했다. 처음에는 가사를 나누어 회장단과 각 국의 국장, 부국장끼리 나누어 부르다가 마지막에 다 같이 불러 31대 학생회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정인의 밤 중간 중간에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가위바위보, 작은 발 대결, 키 대결 등의 레크레이션을 통해 학우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주었고 학우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이형근 학우는 노래를 멋지게 열창하였다. 그리고 이 날 지정인의 밤을 기념하여 학생회에서는 수건을, 지정과 조교님들은 텀블러를 준비하여 지정인의 밤에 참석한 지정인들에게 나눠주었다.

마지막으로 뒷풀이는 한성대입구역 근처 '노가리'에서 이뤄졌다. 이날 지정인의 밤에 참석한 지정인들은 이곳에 모여 음식과 주류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지정인의 밤'에 걸맞게 이날 밤 노가리에선 지정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지정인들도 인사를 나누고 친해지는 자리가 되었다.

봄바람 휘날리며, 신나는 연합MT



2014년 3월 29일 토요일, 지식정보학부 학우(이하 지정인)들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유네스코 평화센터로 연합 MT를 갔다. 연합 MT는 교수님들과 지정인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는 연중행사이다. 특히 올해는 인문대 새내기 캠프가 취소되어 아쉬움이 컸던 만큼 연합 MT에 대한 지정인들의 기대가 컸다. 이번 연합 MT는 10개의 조를 이뤄 총 110여명의 지정인들이 함께 하였다.

이천 유네스코 평화센터로 출발하기 전에 학교에서 도시락을 건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진행했다. 레크레이션에서 이긴 3조가 가장 맛있는 도시락을 차지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정인들은 단체사진과 각 부서, 학생회의 사진을 찍고 1박 2일 동안 지내게 될 '이천 유네스코 평화센터'로 향했다.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숙소에도 도착한 후에도 비가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날씨로 인해 체육대회 등 야외활동이 취소되었고 그 대신 강당에 모여서 레크레이션을 했다. 첫 번째 게임은 신문지 게임이었는데 남자 조원들이 여자 조원들을 안고 좁은 신문지 위에서 너무나도 잘 버티는 바람에 사회자를 당황케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 밖에도 복불복 음식 먹기, 만보기 게임, Hokey-Pokey 게임이 진행되었다. 특히 Hokey-Pokey 게임은 모든 지정인들이 하나 되어 놀았던 가장 재미있던 게임이었다. Hokey-Pokey 게임을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4조가 우승상품인 매화수를 차지하였다.

즐거웠던 레크레이션 후에는 저녁식사 시간이었다. 각 조별로 고기를 굽고, 미리 사놓았던 재료들로 각종 음식들을 만들며 풍족한 식사를 즐겼다. 모든 조원이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먹으면서 조원들 사이에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저녁식사 후, 지정인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던 장기자랑 시간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장기자랑 시작에 앞서 학부장인 정경희 교수님의 축사와 학생회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문화부의 공연이 있었는데 'A', 'Baaam', '난리나' 춤을 완벽하게 추어 지정인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받았다.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인 각 조 14학번 지정인들의 장기자랑이 시작되었다. 1조의 연극부터 10조의 개그까지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다들 많은 볼거리를 준비했고 무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객석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영광의 1위는 싸이의 '챔피언'을 불러 소강당 안 모든 지정인들을 하나되게 만든 9조가 차지했다. 9조는 앵콜 무대를 꾸미며 1등상품인 말리부를 받았다.



장기자랑이 끝나고 모두 식당으로 이동하여 뒷풀이를 하였다. 장기자랑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터라, 지정인들 모두가 즐거운 모습이었다. 교수님들도 참석하셔서, 교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교수님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어색했던 동기들과 서로 알지 못했던 선후배간의 대화를 나누며 서로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했던 일부 지정인들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튿날 아침, 컵라면으로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하고 돌아갈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단체사진을 찍고 1박 2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지정인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춘 채 인사를 나누고 다음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지정의 역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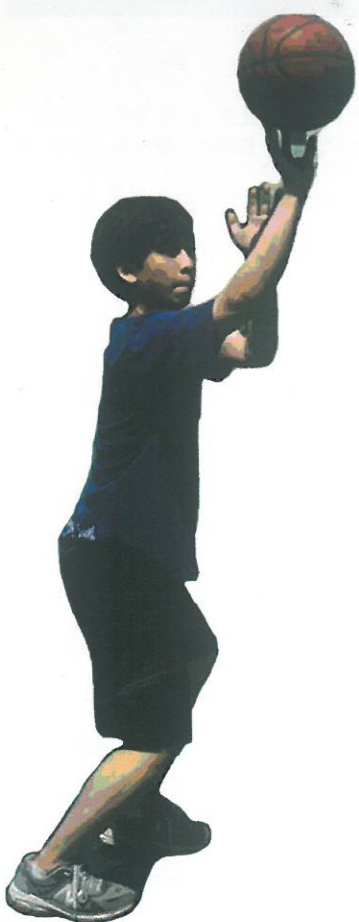
5월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총 4일 간 인대체전이 시작되었다. 종목으로는 농구, 축구, 족구, 피구, 발야구, 줄다리기, 계주, 미션 달리기가 선정되었다.

영어영문학부(이하 영문과)와의 축구경기로 지식정보학부(이하 지정과)의 첫 경기가 시작되었다. 전반전 초반에 지정과의 선제골로, 한결을 앞선 상태로 전반전이 종료 되었다. 그리고 지정과는 가능한 많은 학우들이 필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3명의 교체카드를 썼다. 그러나 후반전이 시작된 후 초반에 실점으로 인해 1:1이 되었고, 지정과의 분위기가 급격히 하락했다. 그러면서 양 팀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보니 점점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 선수들의 반칙이 많이 있었고, 결국에는 약간의 언쟁이 시작되어 경기가 지체되었다. 상황이 마무리 된 후 재계 된 경기에 지정과는 다시 한 번 실점하면서 1:2의 스코어로 영문과가 승리하게 되었다. 양 팀 선수들이 경기 중의 언쟁에 대해 화해를 하며 경기가 마무리 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어문학부(이하 국문과)와의 농구 경기가 시작됐다. 총 2쿼터로 진행된 농구 경기는 지정과 선수들의 활약으로 총 33:19로 지정과가 승리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영문과랑 결승전을 치렀다.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며 1 세트는 13:11로 지정과가 앞선 상태로 마무리 됐다. 그러나 2세트에서 3점 슛을 많이 허용하면서 역전을 당했고, 총점 19:22로 패하였다.

그리고 피구 경기가 시작됐다. 여학우들로 구성된 10:10 경기로 3판 2선승제로 진행되었다. 지정과는 피구 경기에서 영문과와 다시 만났다. 많은 지정과 학우들은 앞선 영문과와의 축구경기 패배를 기억하며 열띤 응원을 보여주었다. 1세트는 최선을 다 하였지만 아쉽게 지고 말았다. 그러나 2세트부터 더욱더 최선을 다한 결과 2,3세트 모두 이김으로써 승리를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열린 국문과의 결승전에서는 아쉽게 0:2로 패하였다.

체전 둘째 날은 국문과와 족구경기로 시작되었다. 1세트는 15:6으로 이기고, 2세트는 15:7로 이기면서 가볍게 결승에 올랐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역사문화학부(이하 역사과)와 결승을 치렀다. 1세트에서 15:4로 이기면서 지정과의 우승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2 세트에서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면서 듀스까지 가게 되었고, 17:18로 패했다. 그리고 3 세트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면서 21:18로 우승을 했다.



다음 경기로 영문과와의 발야구가 시작됐다. 여학우들로 구성된 9:9 경기로 총 5세트로 진행되었다. 1세트에서 지정과의 선공으로 2점을 획득했다. 하지만 영문과의 활약으로 1세트에서 26실점을 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과 학우들은 포기하지 않고 전의를 불태웠다. 2세트에서 1득점 0실점, 3세트에서 5득점 2실점을 했다. 그러다가 4세트에서 5득점 0실점을 했고, 경기는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었다. 지정과 학우들은 역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열심히 경기에 응하여 점수를 획득했고, 영문과 학우들은 긴장을 했다. 그리고 5세트에서 5득점 0실점을 했지만, 1세트에서 너무 많은 실점을 해서 아쉽게 총점 18:28로 영문과가 이겼다. 그래도 지정과 학우들은 끝까지 경기에 최선을 다했고, 경기가 끝나고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셋째 날, 영문과와의 줄다리가 시작됐다. 남 10명, 여 10명으로 총 20:20으로 구성된 경기로 3판 2선승제로 진행되었다. 지정과는 영문과를 상대로 가볍게 2승을 따냈다. 그리고 국문과와 밀고 당기는 팽팽한 결승전을 하였다. 아쉽게도 국문과의 체력이 더 우세해 2패를 하고 지고 말았다.



마지막 넷째 날, 먼저 회장단의 미션달리기가 진행되었다. 남1, 여1로 구성된 경기였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오면서 지켜보는 학우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 그리고 지정과는 미션달리기에서 우승을 하였다.

인대체전의 마지막 경기로 계주가 진행됐다. 3번째 선수가 들고 있을 때 지정과는 3등 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주자가 3등에서 2등까지 추월하고, 1등과 경쟁을

펼치면서 결승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정과 학우들은 더욱더 큰 목소리로 응원을 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아쉽게 넘어지면서 3등을 하였다. 계주가 끝난 후 최선을 다해 달려준 주자들에게 지정과 학우들은 박수를 보냈다.

모든 종목이 마무리되고 최종우승을 발표하는 시간만 남았다. 이때 지정과 학우들은 지정과가 최종우승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점수집계가 끝나자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정과가 4개의 학부 중에서 최종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지정과 학우들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더욱더 기뻐하며 서로 얼싸안았다. 2012년 우승에 이어 지정과는 다시 한 번 더 인대체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지식정보학부 답사 갔어요!

첫째 날

2014년 11월 5일 수요일, 지식정보학부 학우(이하 지정인)들은 2014년도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를 통해 지정인들은 강의실을 벗어나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느끼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답사에는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해인사 등 3곳을 견학했고, 8명의 교수님을 포함하여 총 230여명의 지정인들이 참여하였다.

이른 시간, 지정인들은 학교에 모여 국립세종도서관으로 출발했다. 4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하니 호수공원이 보였다. 지정인들은 호수공원에 모여 휴식시간을 가진 뒤, 국립세종도서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견학이 시작되었다.

첫째날에 견학한 곳은 국립세종도서관과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다. 견학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A팀, B팀으로 나누어 로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직원을 따라서 도서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곳곳을 둘러보며 국립세종도서관 건물이 갖고 있는 의미와 아름다움에 대해 소개받았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책을 펼친 모양을 형상화하여 건축되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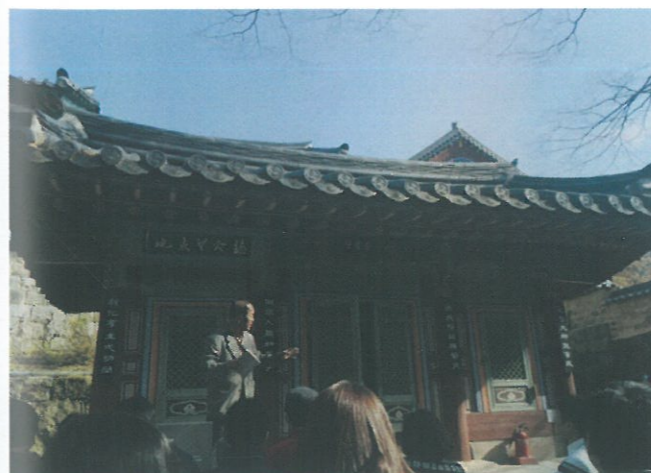
또한,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는 회의실에서 홍보동영상을 감상하며 센터에 대한 소개와 주요기능 등에 대해 배우고, 시설을 곳곳을 체험하고 경험했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는 지정인들의 방문을 기념하고자 공책과 연필을 제공해주었다. 첫째날의 견학을 마무리하며, '우리마을', '무주향'이라는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숙소로 이동하였다.

둘째 날

답사 둘째날 아침이 밝자 합천 해인사를 가기위해 지정인들은 서둘러 버스를 탔다. 1시간쯤 지나 가야산에 도착한 지정인들은 해인사를 향해 올라갔다. 해인사에 도착하니 일주문이 주변 건축물 및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정인들을 맞이하였다.

해인사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자면 해인사는 화엄십찰의 하나로 세계기록유산인 대장경판과 세계문화유산인 장경판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이다. 원래 통일 신라때 처음 세워졌지만 중간에 여러번 불타면서 조선시대에 중창한 사찰이라고 한다.

해인사에는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 있다. 장경판전 안에는 팔만여개의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장경판전이 통풍과 습도가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있어 보관상태가 아주 우수하다고 한다.



지정인들은 숙소에 도착한 뒤 강당에 모였다. 간단한 개회식을 갖고, 다음 날 견학을 위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해인사에 대한 강순에 교수님의 강의가 이어졌다. 그 다음에는 조별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과제는 총 3문장으로, '도서관은 000이다.' '문헌정보학은 000이다.' '지정인은 000이다.'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었다. 각 조별로 창의적인 답을 내놓았지만, 1등은 도서관을 태양으로 표현한 2조가 차지하여 1등상품인 매화수, 굴, 라면을 받았다. 강당 안에서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각 조별로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선배와 후배가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강당은 활기로 가득 찼다. 강당에서의 시간만으로 아쉬웠던 지정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며 아침을 맞이했다.

해인사 관람은 총 3팀으로 나뉘어 각 팀마다 해설사 한분씩을 모시고 진행되었다. 지나가는 스님을 보고 손을 모아 인사하는 모습,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 학우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 등 다양한 지정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장경판전을 관람할 때는 비록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 대장경을 자세히 볼 순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건축물 구조의 아름다움과 대장경이 보관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관람이 끝난 뒤 지정인들은 점심식사를 하고나서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것으로 2014년 지식정보학부 학술답사가 종료되었다.



지樂퍼樂 회장단의 1년

눈 깜짝할 사이 여름방학이 지나가고 2학기, 절반이 지나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과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회장단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았다.

1. 지樂퍼樂 학생회의 활동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우선 작년에 걸었던 공약 4가지를 모두 다 지켰습니다. 먼저 예산투명화 공약을 지키기 위해 2개월에 한 번씩 예산 사용내역을 과실에 공지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4년에 한 번 답사가 있었을 때에는 개인사정상 불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답사를 2년에 한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1학년들을 위한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형화되어있던 이전의 회식보다 1.5배 더 많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년도에는 축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실 개선입니다. 먼저 기존의 벽이 누렇게 변색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페인트를 새로 칠해 과실을 화사한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과실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소파와 사물함 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원래는 사물함이 소파 등 뒤에 있었기 때문에 사물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서있으면 통로가 막혀 이동이 불편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물함배치를 바꾸어 학우들이 기존보다 과실을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계-하계 때 총 3번의 대청소와 학기 중 각 부서 부원들의 청소를 통해 항상 과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2. 1년간 학생회 활동을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권혜진(11학번) : 벽차고 아쉬운 느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두려움도 많았고 잘할 수 있을지 고민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학생회 친구들도 잘 따라주었고, 1학년 친구들도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달조차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많이 못해주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정다솜(12학번) :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되는 마음도 많았는데, 1년동안 활동하고 나니깐 뿌듯한 부분도 많이 있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정말 시원섭섭해요.

김현석(13학번) : 원래는 부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을 생각이 없었어요. 갑자기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3,4월엔 너무 힘들어서 왜 했을까? 라는 생각도 종종 들었는데, 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좋은 경험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활동 중에는 힘들었을지라도 저에게 많은 추억이 생겼기 때문에 뿌듯합니다.

3. 학생회 활동 중 가장 뿌듯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권혜진 : 일단 2년만에 체전 우승을 한 점이 뿌듯해요. 내년부터는 체전이 없으니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게 다인데 우승해서 정말 좋았고, 생각보다 단합이 잘되고 참가율도 높아서 지정과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또, 1학년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진 점이에요. 과실 들어올 때마다 먼저 인사해줄 때가 정말 뿌듯합니다.

정다솜 :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연합MT갔을 때 비가 갑자기 와서 야외활동에서 실내활동으로 바뀌었잖아요. 우천 시 할 걸 미리 생각해 놓기는 했는데 확실히 야외활동보다 미흡했거든요. 근데 1학년 친구들을 비롯해서 선배님들까지도 다들 너무 재미있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또한 아슬아슬하게 체전 우승해서 기뻐요.

김현석 : 인문대 체전 때 회장단 달리기에서 보너스 점수 받아서 우리 과 전체가 우승한 점이 뿌듯해요.

4. 학생회 활동 중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다면?

권혜진 : 1학년 친구들한테 못해준 게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워요. 새내기배움터(이하 새터), 축제와 같은 큰 행사들을 다 못했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했으면 서로 추억도 더 많고, 더욱 돈독해졌을 텐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움보다는 미안함이 더 큰 거 같고,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31대 학생회 지樂퍼樂 회장단

정다솜 : 먼저 페이스북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운동장이 없어져서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라진 것도 아쉽긴 한데, 그런 점은 우리 뜻대로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한성지정' 활성화와 같은 경우는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게 아쉬워요. 원래는 이 페이지를 활성화해서 다들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또 모든 행사가 다 사라져 버린 부분이에요. 신입생들이 축제 같은 행사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못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죠.

김현석 : 저희가 새터에 가기 전에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거의 2달 정도 방학동안 와서 회의하고 장기자랑도 연습하고 다 짜냈는데, 결국엔 취소가 되어서 아쉬웠어요. 특히 장기자랑 같은 경우는 회장단 장기자랑과 문화부 장기자랑 두 파트를 방학 때 거의 매일 학교에 나와서 준비했거든요.

5. 32대 학생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권혜진 : 앞으로는 학생회하면서 더 힘들어질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학생회 사람들끼리 더 많이 돈독해졌으면 해요. 학생회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뿐만 아니라 선후배간의 사이가 더 돈독했으면 좋겠고, 1학년 과대들과의 시간도 많이 가졌으면 해요. 그리고 학우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활동 중에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모두 다 책임을 다해서 일했으면 합니다.

정다솜 : 일단 우리도 누가 봐도 '너무 훌륭해! 잘했어!' 라고 이야기 들을 정도로 잘 한건 아니니깐 뭔가 다음 학생회한테 바란다고보다는 서로 의의 상하지 않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해서 풀고, 서로 단합이 잘될 수 있게 마음 터놓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특히 중요한거 같아요. 정말 서로 관계를 잘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김현석 : 일단 학생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임원들끼리의 단합인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학생회도 학기 초에는 힘겨움이 다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잘 극복했는데, 서로 친해지는 게 중요한거 같아요. 그리고 학생회가 알게 모르게 다 욕도 많이 먹고 힘들 텐데, 이왕 일하는거 좋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줬으면 해요.

6. 마지막으로 지정과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권혜진 : 먼저 1년 동안 잘 따라줘서 고맙고 서툰했던 부분도 많았을 텐데, 다 이해해주고 감싸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회친구들 너무 수고했어요!

정다솜 :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던 점을 좋게 봐주신 것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김현석 : 일단 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부학생회장의 역할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행사가 있을 때마다 잘 참여해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일 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학생회장단의 그동안의 수고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 다른 학우들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한 회장단에게 박수를 보낸다.

제 32대 학생회 ‘평생지기’



회장단 인터뷰

1.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지은(12학번) :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것이 한번쯤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주변에서 권유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슬기(13학번) : 저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마침 권유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2. 32대 학생회 이름과 뜻은 무엇인가요?

32대 학생회 이름은 ‘평생지기’ 이고, 뜻은 편안한 분위기에 친구 같은 학생회가 되자는 의미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3. 공약 및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공약 첫번째는 간식의 다양화입니다. 저희가 간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점을 개선을 하여 여러종류의 간식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일호프입니다. 일일호프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사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면서 아쉬워하는 학우 분들을 위로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정과 학생들을 전부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일일호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일호프를 통해 모이는 수익금으로 도서관 같은 시설에 기부를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과실 개선입니다. 매년마다 과실개선 공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번 저희의 공약 내용은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난로, 멀티탭 같은 소모품 종류를 구비하는 것이며, 낡은 것들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4. 32대 학생회가 어떤 학생회가 되길 바라시나요?

여지은 : “잘 했다”, “수고 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회라 하면 무거운 분위기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없이 다가가고 거리낌 없이 제의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슬기 : 학생회 이름처럼 편안한 분위기의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지식정보학부 학우분들께 학생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라시나요?

여지은 : 처음부터 이야기 했듯이, 학생회 이름인 평생지기처럼 편안한 분위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원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회는 먼 존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존재, 언제든지 다가가갈 수 있는, 열려있는 그런 존재였음 좋겠습니다.

김슬기 : “독단적이다” 라는 말만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반영해 주는 학생회라는 말을 듣고 싶고, 열린 이미지로 비추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집부이야기

도활국

도활국은 1학기 동안 달빛마루 도서관에서 5건의 주말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여름 방학 중에는 계룡산에 위치한 청향원 작은도서관의 전산화 작업에 참여하였고, 작업 중 진행되었던 청향원 작은도서관의 관장님, 국회도서관 사서, 명지대학교의 김영석 교수님의 강연에도 참석하였다.

부국장 오우람(08학번) : 도활부 부국장으로 1년을 보냈다는 생각에 드는 감정은 '부끄럽다', '미안하다' 같은, 아쉬움이 앞서는 것들이다. 신입생들의 기대를 부국장으로서 충족시켜주고 싶었지만, 지난 학기를 돌아보면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지 못한 내 자신에게 아쉽기 그지 없을 따름이다. 그러나 신입생들이 내 말에 잘 따라와 준 좋은 후배들이어서 정말 고맙다.



국장 김가은(13학번) : 1년 동안 부장으로서 많이 부족했지만 불만 없이 열심히 따라와준 국원들 정말 고맙고, 축제가 없어서 사업 활동 함께 못했던 점 아쉽기도 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벌써 끝이 오네~~ 내년에 후배들이 들어오고 부원활동이 끝이 나도 문화예술국 포에버야 알지??

부국장 최지원(13학번) : 작년 지남 때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소감문을 쓰는 게 실감이 안 난다. 처음에는 잘 할지 걱정했는데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다. 문화부에 별로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애들이 잘 따라줘서 고맙다.

문화예술국

문화 예술국은 연합MT와 지정인의 밤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정책국

기획국은 학기 초, 연합 MT를 위하여 답사를 다녀왔다. 또한 중간·기말고사 기간에는 학업에 열중하는 학우들을 위해 간식을 배부하였다.

국장 오세원(13학번) : 정책국은 전대 부차장의 사정에 의해 다른 집부들보다 한 학기를 더 해서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러나 부국장과 14학번들의 도움으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부국장 이지민(13학번) : 1년이 정말 후딱 지나가서 아쉽지만 좋은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정말 즐거웠다.^^ 지락떠락 안했으면 학교생활도 이렇게 못 보냈을 것 같고 다들 정말 고마워용~~~~♡



편집국

편집국은 1년간 지식정보학부 곳곳에 진행되었던 행사와 지정인들의 특별한 소식들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 또한 편집과정을 거쳐 2014년도 그림비를 제작하였다.

국장 권정예(13학번) : 일년동안 열심히 해준 편집국원들이 정말정말 고맙다. 긴 내용은 편집후기에 이어서!

부국장 조우연(11학번) : 편집국 부국장을 맡게 되면서 어떻게 편집국을 이끌어가야 할지 고민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그림비가 나올 시기가 되었다. 함께해준 정예와 편집국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올리고 싶다.



홍보국

홍보국은 개강 전에 14학년 카페 관리에 참여하였다. 또한 정모, 연합 MT 등 행사 때에 명찰을 배부했으며, 개강파티, 간식배부, 시험, 조직도, 연합 MT, 인대체전, 사물함 신청 등의 소식을 알리는 자보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Facebook 페이지 '한성지정' 관리를 담당하였다.

국장 한서연(13학번) : 학생회를 시작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이 지났네요. 아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대학 생활에 정말 좋은 추억 얻게 되어 좋아요!! 지라퍼락 학생회 짱짱♡ 홍보국 파이팅♡

부국장 안시현(13학번) : 1년 동안 홍보국 부국장으로 일하면서 좋은 선후배도 사귀고 많은 경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국장인 서연이와 잘 맞아서 트러블 한 번 없이 재밌게 활동했었습니다. 홍보국 포에버♡

2015 집부인사



<도활국>

국장 최선아(14학번) : 벌써부터 제가 선배들께 받은만큼 후배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부국장과 함께 열심히 알차게 도활국 이끌어 갈게요! 잘부탁드립니다. :)

부국장 이재희(14학번) : 도활국 부국장을 맡게된 이재희입니다. 도활국에 여러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국장을 돕겠습니다.



<문화예술국>

국장 배정현(14학번) : 문화예술국 국장이 되어서 기쁘고 새로 맞이할 친구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누구보다 재밌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국장이 되겠습니다. 국원 모두 책임지고 하드캐리할게요.

부국장 김예진(14학번) : 내년에 문화예술국 부국장을 맡게 되었는데 부국장으로써 푹부러지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인 정현오빠를 도와서 문화예술국이 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국>

국장 이가은(14학번) : 1학년 때 정책국 국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동참했는데 의미 있고 좋은 일이 많아서 보람찬 경험이었다. 이번에 정책국 국장이 된 만큼 내년에 더욱더 좋은 일하는 정책국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부국장 이주연(14학번) : 정책국 부국장이 되어 지식정보학부의 무궁한 발전에 힘을 성실한 일꾼이 된 것에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 알찬 정책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과 간식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가은언니를 도와 푹부러지는 부국장이 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편집국>

국장 강주영(14학번) : 편집국 국장으로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부국장인 아영이와 함께해서 든든하다. 앞으로 열심히 편집국활동 하겠습니다!

부국장 황아영(14학번) : 안녕하세요! 내년도 부국장을 맡을 황아영입니다ㅎㅎ 많이 부족한 저 이지만 주영이를 도와서 멋진 편집부, 멋진 그림비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편집국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세요~!



<홍보국>

국장 우다연(14학번) : 내년에 홍보국 국장을 맡게 되었는데 마음이 복잡하다. 새내기의 생활이 어느덧 끝나는구나 싶기도 하고~ 홍보국에 들어올 15학년 신입생들에게 안 좋은 추억을 남기는 건 아닐까 많이 걱정이 된다. 그래도 하현이랑 같이 하니깐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요즘 여러 가지일로 많이 바쁘는데 그래도 국장 자리를 맡게 되었으니 최선을 다하겠다!

부국장 박하현(14학번) : 안녕하세요. 이번에 홍보국 부국장이 된 박하현입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홍보국이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국장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국 파이팅!

마블챌린저란 무엇인가! ?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대외활동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대외활동들 중에서 눈길을 끄는 대외활동이 있는데요, 바로 '마블챌린저'입니다. 마블챌린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조성미(12학번) 학우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넷마블 마블챌린저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A. 넷마블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e-스포츠,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또한 넷마블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넷마블에서 개최하는 e-스포츠 기획에 참여하고 그것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블챌린저는 넷마블의 온-오프라인 행사 및 콘텐츠를 기획, 보조, 홍보하는 활동입니다.

Q.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제가 먼저 알아보고 마블챌린저를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의 추천으로 마블 챌린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대외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열정적으로 마블챌린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블챌린저에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마블챌린저에 지원하였고, 최종적으로 마블챌린저에 선정되어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마블챌린저 3기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가장 어려웠던 점과 가장 뿌듯했던 점이 무엇인가요?

A. 가장 어려웠던 점은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시할 콘텐츠 아이디어를 일주일에 1~2개 씩 제공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이 생각한다고 해서 쉽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고심한 끝에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계속하여 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였을 때는 가장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힘들게 준비한 행사에 참여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에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고,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보고 반응이 좋았을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Q. 학업과 외부활동 병행이 힘들지는 않았나요?

A. 아무래도 시험기간에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외활동은 보통 기업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다 보니 학생들의 시험기간까지 배려해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경우 시험기간에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시험기간 당시 행사기획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밤늦게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Q. 추천한다면 어떤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요?

A. 일단 게임을 좋아하는 학우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게임관련 회사다 보니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고 게임관련회사 취업에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에 관심 있는 학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게임을 어떻게 홍보해야할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마케팅 기초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활동할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대외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원래 학과를 마케팅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지식정보학부에 오게 되면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험을 통해 마케팅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블챌린저활동을 통해 기업의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게 되었고 이것은 취업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블챌린저는 수도권 거주 대학생 및 휴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넷마블에서 생생한 실무를 경험하고 다양한 기업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은 학우는 많은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먹었을 때 고민하지말고 떠나라

체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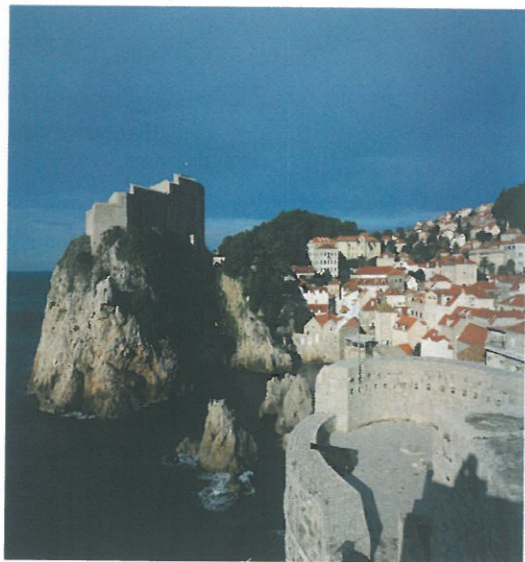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1. 여행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여행 준비를 위해 전반적인 정보는 주로 네이버 카페 유랑을 통해 얻었다. 유랑은 회원 수가 100만이 넘어가는 큰 카페이므로 업로드 되는 정보도 엄청나다. 또한 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현실적이면서도 최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비행기 티켓 예매는 'www.skyscanner.com' 과 인터파크 항공 검색결과를 비교하여 예매를 하였다. 위 방법은 저렴한 가격에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는 좋은 방법이기엔 추천한다. 또한 숙박업소는 미리 알아두고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호스텔 숙박 관련 사이트는 'www.hostelworld.com'와 'www.booking.com'에서, 한인민박 관련 사이트는 'www.minbakdanawa.com', 카우칭 서핑은 'www.couchsurfing.org'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 숙박업소를 고를 때 와이파이와 잘되고 관광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2. 여행 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한 달 동안 배낭여행 중에 들렀던 곳은 체코의 프라하, 체스키 크롬로프,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잘츠부르크, 빈,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자다르,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 영국의 런던, 요크, 에든버러, 리버풀, 맨체스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순이다.



3. 여행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런던 숙소에서 같은 방을 썼던 형이 있었다. 이 형은 네덜란드에서 교환 학생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여행을 하고 있던 형이었는데 그 형과 같이 뮤지컬도 보고 근교 명소도 가고 밤에 맥주도 마시며 런던 여행 5일 중 3일을 같이 다녔다. 어느덧 런던에서의 5일이 끝나고 숙소를 떠날 때 그

리얼타임

크로아티아

리얼타임

돈은

형과 페이스북 북 주소를 교환하였다. 알다시피 페이스북으로 사람검색을 하면 함께 아는 친구가 뜨는데, 그 형과 같이 아는 사람에 친형이 있었다. 알고 보니 우리형의 과 동기였다. 3일 동안 대학 이야기를 한 번도 안했는데, 아마 그때 대학 이야기를 했다면 여차저차해서 과 동기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귀국해서 그 형, 우리 형과 셋이서 만나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세상이 좁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경험이었다.

4. 여행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학우들에게 추천 및 조언해주세요!

관광을 할 때 사진만 너무 많이 찍는 것은 좋지 않았다. 사진만 찍게 되면 그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에 걸맞은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관광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기초적인 것, 사소한 비행기 매너 까지 주의하여 품격 있는 한국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후식을 계속 먹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상관없다.

자신이 여행을 계획할 때 테마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여행테마를 도서관으로 잡고 방문하는 나라마다 도서관을 방문을 하는 것이다. 또한 숙소에서 혼자 있기 보다는 숙소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보공유도 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여행지에 관한 유익한 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가 가는 곳에 대해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것이 좋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더 많은 것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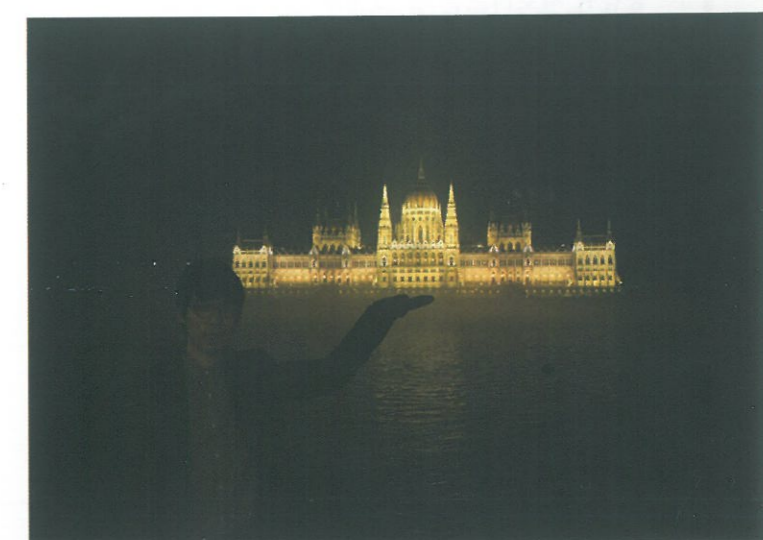
5. 여러 가지 문제로 여행을 망설이는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계획을 짜기 전부터 지레 겁먹지 않는 것이 좋다. 보통 출발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하는 생각은 '여자 혼자 가기에 위험하지 않을까?', '난 영어를 못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돈 없는데...' 같은 것들이다. 먼저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치안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다. 따라서 위험을 걱정하며 여행을 가지 않는 것 보다는 여행지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고 주의 사항을 잘 지키며 여행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혼자 여행을 온 여자들도 많이 보았기에 용기만 낸다면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로 언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단어 몇 개만 알아간다면 여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또한 바디랭귀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다.

마지막으로 걸리는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인데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용돈을 아껴서 적금을 드는 방법 등 진심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면 노력을 통해 충분히 여행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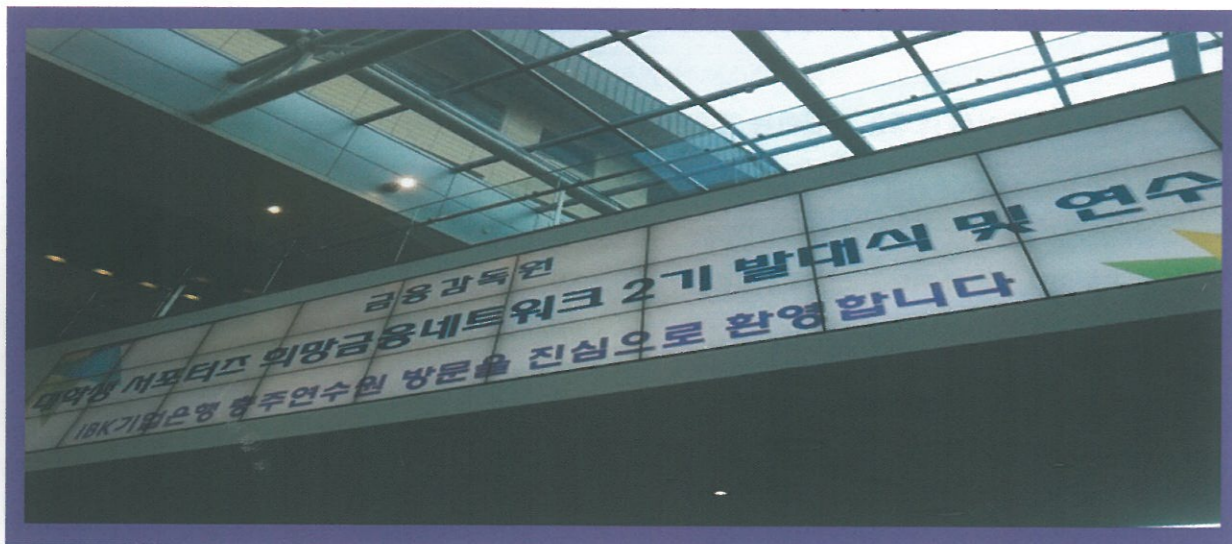
사실 여행을 떠나기 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여행이 시작됨과 동시에 전부 별거 아닌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만큼 여행을 떠나기 전에 겁부터 먹고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은 대학생 시절에 느껴볼 수 있는 황금과 같은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 결코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장담 드리며, 여행을 망설이셨던 분들은 지금당장 여행을 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서포터즈,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



권혜진(11학번) 학우가 활동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서포터즈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금감원 서포터즈는 무엇인가요?

금감원 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금융감독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연수를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의 제도, 활동 등을 소개하고 금융권에 있는 이슈들을 블로그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종 축제나 봉사에 참여하여 금융감독원을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2. 금감원 서포터즈를 하게된 계기는?

저는 현재 경제학과를 복수전공중인데, 금융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금감원 서포터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금감원 서포터즈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금감원 서포터즈 선발과정은 총 2차례의 시험과 연수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1차 시험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 최종인원의 2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그 뒤 2차 시험은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한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면접에서 춤, 노래를 통해 자기PR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PR동영상을 제작해서 면접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2차 면접 시험까지 통과하게 되면 1박 2일 동안의 연수가 진행이 되고, 이 연수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됩니다.

4. 금감원 서포터즈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금감원 서포터즈 활동은 크게 팀, 개인 활동으로 나뉘집니다. 먼저 팀 활동은 한 팀에 4명으로 구성되고, 팀별 주제에 맞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저희 팀의 미션과제는 '봉사와 금융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유기견 봉사를 하며 '금융감독원 1332'라는 제도에 대해 소개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야구장에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설명,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스미싱 예방법등을 소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개인 활동은 블로그 활성화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금감원에 있는 제도 및 경제적 이슈 등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UCC를 제작하여 올리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Talk



5. 금감원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얻게된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면접 준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관련기업 면접 시 경제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신문이나 뉴스를 더 집중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면접준비에 따로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이론적인 공부만 하다보면 금융과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금융계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떻게 취업을 향해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친분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6.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금감원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취업준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연습을 하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었고 실제 면접을 거치면서 자연스러운 면접연습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식정보학부 학우 여러분들이 꼭 금감원 서포터즈가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는 분야의 서포터즈 활동에 도전하며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어를 펼쳐라! 꿈은 이들이여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가장 주력화 하는 사업으로 창조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그에 대한 방증으로 내년도 미래 창조 과학부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내년도 예산은 14.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창조경제에 집중 투자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17%나 상승한 것이다. 내가 창업에 관한 강의를 들었을 때 전문가 선생님은 이를 보고 '미쳤다'라고 표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창업자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은 창업의 순환을 수월하게 하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산업이나 신시장이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 해준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소위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을까. 정말 미친 짓인 것인가? 그리고 넓게 보았을 때 이 창조경제 사업이 과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으로 끝날 것 인가?

21세기는 이제 아이디어 시대이다.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또한 한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장르가 아닌 본래 있던 다양한 장르의 융합물로 탄생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국가 수준에서 한 개인의 창조자산의 성행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뒷 세대의 경제를 책임질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청년들의 사고는 그렇지 않다. 청년실업 100만인 시대에서 그들은 나를 찾아주는 곳이 없다며 사회에 울부짖는다. 성공한 선배들의 기준은 자기가 좋아서 하던 좋아서 하지 않던 간에 대기업에 입사한 것이 그들의 어깨를 높게 자리해준다. 우리는 편협된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리만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청년들에게 정부의 창조경제타운은 단비를 내려주고 있다. 비록 초반엔 미약한 아이디어 일지라도 발전가능성을 높게 사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아이디어란 단어는 굉장히 거창하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 중 'Seoul Bus'가 고등학생의 손에서 태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등교시간에 버스 배차 간격을 알고 싶어 공공 사이트인 버스 홈페이지에서 버스 배차 간격 데이터를 핸드폰으로 끌어다 쓴 것으로 시작했다. 간단한 과정이었지만 그의 시작은 그의 주변 친구에서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불편함을 간단하게 해결해주었다. 생활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겪었던 여러 불편함이 곧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까지 있으니 청년들은 더 이상 서류 책상만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미 창업 관련 여러 교양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있다. 그들은 창업의 현 실태와 아이디어 구축을 도와주고 매주 아이디어를 점검해주고 있다. 그리고 향후 창업 관련 실전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만으로 끝냈던 아이디어들은 사실 누군가 굉장히 필요한 것들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재'로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창업의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작은 가게

우리들의 작은 가게는 서울시 및 서울 산업진흥원의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인 캠퍼스 CEO 육성사업의 일환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소자본을 지원, 사업 계획서부터 판매까지 창업프로세스를 직접 체험하면서 창업 마인드를 실천하도록 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우리들의 작은 가게에 35개팀이 지원했고,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18개 팀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팀은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간 학내에서 가게를 운영했다.

식식정보학부에서 우리들의 작은 가게 프로그램에 참가한 팀은 총 3팀이다. 아사빠 팀, 악마크레페 팀, 오래요~빙수 팀이다.

이 3팀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작



은

Q. 참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동기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얻은 좋은 아이디어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Q. 대회 기간 중에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가장 좋았던 점은 아사빠를 진행하면서 벌었던 수입이다. 생각보다 큰돈을 벌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그리고 학교사람들 얼굴을 익힐 수 있었던 점도 좋았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학교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인맥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창업을 한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었다. 어린 나이에 쉽게 경험하기 힘든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다. 또한 우리가 직접 일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다.

Q. 대회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전체적으로 일이 다 힘들었다. 특히 다량의 아이스크림,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들고 왔다 갔다 옮기는 것이 힘들었다. 갑자기 추워지다가 바람도 많이 불고하는 변덕스러운 날씨도 어려움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도 주재료가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녹지 않을까?' 하며 신경 쓰는 것도 힘들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부스 안에서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부스 안에서 대충 먹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계획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이 생기다 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했다.

아사빠 팀



가 악마크레페 팀

Q. 참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악마크레페 팀원끼리 추억을 쌓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작년에도 창업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친구들과 재밌고 소중한 추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창업대회가 열린다고 공지가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시 한 번 도전해보라는 추천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번에는 맛있는 먹을거리를 아이템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Q. 대회 기간 중에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팀원끼리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추억을 쌓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3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여름방학 때 여행 계획도 세울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에 번 돈으로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대회의 수입금 중에 10%를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았다.

Q. 대회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불이 너무 뜨거웠다는 것이다. 크레페를 만드는 과정에는 불을 다루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재료를 구입했는데, 코스트코가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서부터 식기나 재료를 들고 버스를 통해 이동을 하였다.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었다. 그리고 3일 내내 하루 종일 이 일에만 몰두하고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도 힘들었던 점 중 하나이다.

게 오래요~빙수 팀

Q. 참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올해로 우리 팀원 모두가 3학년이 되었다. 3학년이 될 때까지 학교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행사나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동기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자 참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전부터 내일로 기차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여행에 필요한 비용을 모으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이번 팀원들과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고 예전부터 여행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 돈을 벌어서 졸업 전에 꼭 여행을 가고 싶다.

Q. 대회 기간 중에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동기들과 같이 대회 준비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엄청 새롭고 재밌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났던 것 같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서로 훨씬 더 친해지고, 돈독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거나 배려하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대하다 보니 서비스 정신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다.

Q. 대회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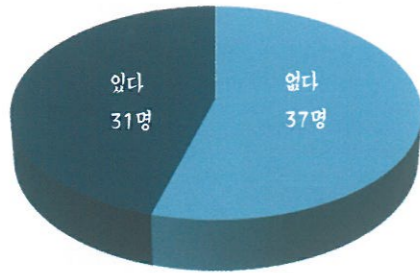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은 점이 제일 힘들었다. 준비한 것 보다 많이 안 팔려서 속상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처음에 사용했던 얼음을 가는 기계가 수동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팔도 아팠던 점이였다. 나중에는 자동 기계를 구해서 빙수를 빨리 만들 수 있었다.



지정인 설문

설문 총 인원: 주간 40명 야간 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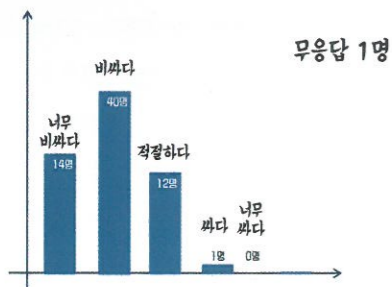
1. 나는 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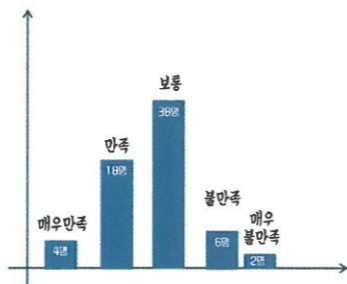
2. 나는 지식정보학부 전공을 살려 취업할 계획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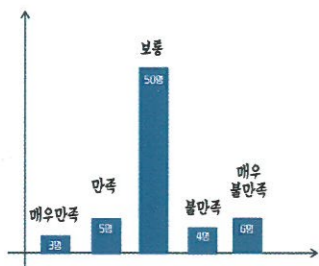
3. 우리학교 등록금에 대한 생각은?



4. 현재 나의 대학생살 만족도는?



5. 지라퍼락 학생회에 대한 만족도는?



6. 학교 앞 음식점 중 가장 맛있는 곳은?

- 1위 윤家네 (17명)
- 한성 분식 (17명)
- 2위 기타 (12명)
- 3위 떡고물 (5명)
- 암암 떡볶이 (5명)
- 4위 라면 일번지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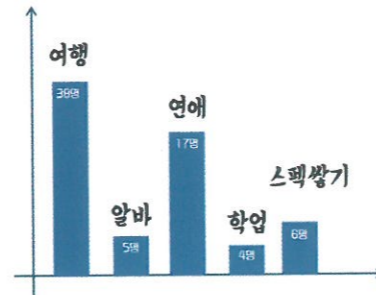
7. 공강 시간에 가는 곳은?

- 1위 도서관 (30명)
- 2위 카페 (21명)
- 3위 과실 (12명)
- 4위 휴게실 (2명)
- 동아리방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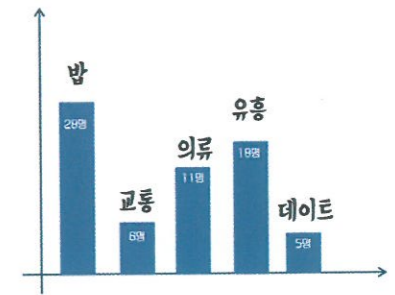
8.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 1위 서지학, 지식정보사회론 (10표)
- 2위 문화인류학의 이해, 윤리학, 지식정보자원활용 (3표)
- 3위 논리와 사고 (2표)

9. 대학생 신분으로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10. 수입(용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하나요?



11. 나는 적어도 1학기 이상 휴학을 할 것이다.

YES 36명

NO 32명

12. 나는 선배가 밥을 사준 적이 있다.

YES 32명

NO 36명

13. 나는 우리과 사람 중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

YES 9명

NO 59명

14. (13번 질문 1번에 응답한 사람중) 올해 안에 고백을 할 것이다.

YES 6명

NO 3명

지식정보학부 제 3회 취업프로그램 사서직 공무원 특강

2014년 4월 9일, 미래관 지하 103호에서 김양우 교수님의 정보봉사개론에 대한 사서직 공무원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사서직 공무원 시험에 관한 것이어서 그런지 3,4 학년 학우들의 비중이 높았고, 졸업하신 동문들도 소식을 듣고 참석하였다. 특강은 사서직 공무원 시험 소개, 시험 교재 소개, 시험문제 분석,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사서직 공무원 시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특강이 시작되었다. 현재 사서직 공무원 시험의 종류로는 국회도서관 5-9급, 국립중앙도서관 7-9급, 지방직 9급, 그리고 사서교사 임용고시 등으로 나뉘져 있다. 최근 사서직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50:1(사이버 국가고시센터 통계), 최종경쟁률은 10:1(에듀피디 통계)로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 이유는 사서직 공무원 시험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해야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 그리고 국회도서관 5급의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 모두 합격자가 한명도 없어 합격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시험 교재**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시험 교재는 관련교재와 수험교재로 나누어 추천 및 설명을 하셨다. 관련교재에 관한 추천으로는 '참고정보서비스론(장혜란 역)', '정보서비스론(박준식 지)', '디지털 도서관 정보서비스(정진식 외 3명 지)'가 있다. 특히 '참고정보서비스론'은 최신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길 바란다라고 교수님께서 당부하셨다. 수험교재 추천으로는 'Leader's 정보봉사개론(신인수 편저)', '2014. 시험 전에 꼭 풀어봐야 할 문제(공무원 시험 연구소 편저)' 9급 공무원 시험 완벽대비서 정보봉사개론, '정보봉사론 1,2(우학명 편저)'가 있다. 이 수험서들은 방대한 양의 정보봉사개론을 요약하여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시험에 중요한 정보들을 습득하기에 좋다.

또한 **연습·기출문제 풀이는** 시험대비에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직접 문제를 푸시고 해설하시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풀이에 앞서 사서직 공무원 시험은 기출문제의 외부 반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서직 공무원 시험을 치른 사람들이 웹사이트 '사서 e 마을'에 기출문제를 제공해주므로 이 웹 사이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하셨다. 본격적인 문제풀이 시간에 교수님께서 시험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지문의 상대성, 함정의 필수성, 출제의 제한성, 정답의 유추가능성, 난이도의 배분성, 출제자 의도 파악의 중요성을 각각 설명하시고, 문제풀이를 진행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강의하셨다.

끝으로 사서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우들을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리**하여 말씀을 하셨다. 첫째로 시험 공고문을 분석해야 한다. 시험 공고문은 해당 시험이 언제 치러지고 어떤 과목을 봐야하는지, 가산점 혜택은 없는지 등을 세세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한번 출제된 문제는 다시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기출문제를 통해 무엇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보봉사개론 과목을 세세히 나누면 정보봉사, 정보검색, 전자도서관, 정보학 이론으로 나누어지므로 지정과 과목과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학과수업을 잘 듣는 것이 좋다. 이번 특강으로 특강에 참석하는 많은 학우들이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본다.

지식정보학부 취업 경진대회가 열린다

5월 28일 수요일, 미래관 DLC에서 지식정보학부(이하 지정과) 취업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총 8팀으로 구성된 각 팀은 공공 도서관 또는 기록관을 방문하여 알게 된 정보와 취업정보 등을 PPT를 통해 발표하였다. 교수님들과 지정과 학우들이 많이 참석하여 현장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제일 긴장되는 첫 발표는 MPL(Mento in Public Library)조로 시작되었다.

'MPL' 팀은 김성민(88학번) 동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첫 번째로 공공도서관 업무의 특징 및 사서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 관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권한과 책임이라 하였고 대외적으로 타 기관과의 협력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도서관의 루키들'** 팀은 서울도서관을 방문하였고, 크게 도서관 탐방과 서지선(07학번) 동문과의 이야기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였다. 서울도서관에서 하는 일과 각 층별 소개를 하고 서지선 동문과의 이야기를 통해 사서 공무원 시험에 대해 소개하였다. 사서공무원 시험 날짜, 합격 후 발령 장소와 T/O 에 관한 소개, 필요한 전공과목, 자격증, 시험공부 방법과 면접에 대해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일석이조'** 팀이 발표를 하였다. '일석이조' 팀은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였고, 김기현(82학번) 동문을 만나 '현직 사서가 말하는 솔직한 취업이야기'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였다. 취업에 토익 및 자격증 등 스펙도 중요하지만, 흥미와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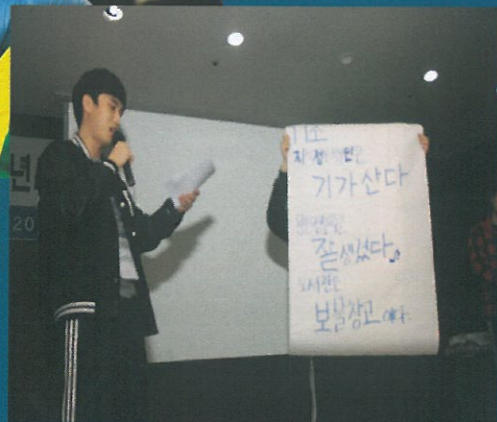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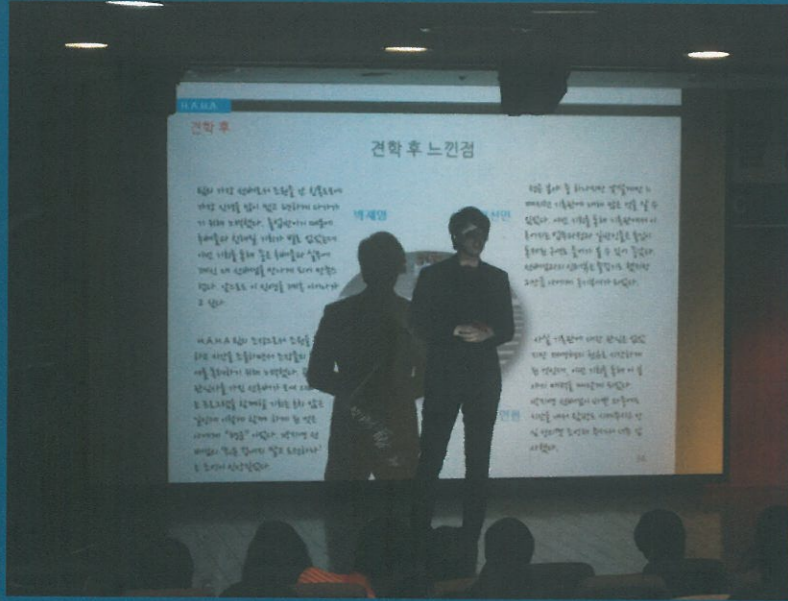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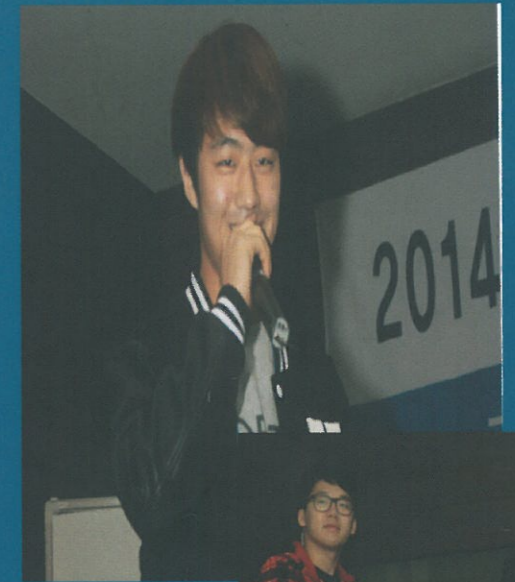
이어서 **'진격의 도촬부'** 팀이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팀은 팀원 10명 전원이 '도서관 활동부'라는 특징이 있다. 진격의 도촬부 팀은 국립 중앙도서관을 방문하게 된 계기, 멘토인 이윤경(85학번) 동문의 간단한 소개와 사서직 공무원의 수행 업무와 근무지, 응시 자격, 시험과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이어 **'누네띠는 웨이크'** 팀의 발표가 이어졌다. '누네띠는 웨이크' 팀은 SBS 아카이브팀과 콘텐츠 허브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SBS 아카이브팀은 모든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여 축적을 하고 있으며, 보관에 있어 온도는 중요한 요소로써 바람을 통해 온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한다. 변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카이브 팀의 주된 목적이다.

그 다음 순서로 **'JJ와 아이들'** 팀이 발표를 진행하였다. 'JJ와 아이들' 팀은 한국일보 도서관에 방문하였다. 한국일보 서가에는 창간호부터 발행한 모든 신문이 보관되어 있고, 파손 위험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렁이 사진

편집: 13권정에



리피어퍼 ☆

1414001 강주영 1년이 생각보다 빨리 갔고, 학교를 다니면서 즐기거나 놀 행사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쉬웠고 그래도 즐거운 1년이었다!

1414002 김탁근 학교 운동장을 없앤다는 것이 황당하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겐 너무 가혹하다. 2학기 때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모두 다 잘 끝마쳤으면 좋겠다. 준호가 가끔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 그것만 고쳐주면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1414003 김명덕 운동장이 없어진 것이 생각보다 큰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공사소음이 너무 커서 신경쓰인다.

1414004 김백영 어서 방학이 왔으면 좋겠네요.

1414005 김선욱 대책 없이 운동장을 없애고 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이동할 때 불편하고 수업 중에 소음으로 집중이 되지 않는다.

1414006 김유정 통학은 여전히 지치지만 듣고싶은 수업도 듣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좋습니다. 저마다 나름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

1414008 김정원 과제가 많이 귀찮지만 나름대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은 학기 다들 재미있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1414009 김준호 공사장 소음이 너무 커서 시끄럽다. 그리고 실땀없이 종알거리는 락근이의 입도 참 신경쓰인다.

1414010 김치영 학교에 운동장이 사라져서 공강시간이 심심하다. 전공이 너무 어렵다. 1교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힘들다.

1414011 나경주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것이 아쉽다. 모두들 건강하게 2학기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어.

1414012 남은경 이래저래 지내다 보니 벌써 1학년도 얼마 안 남았다ㅠㅠ 이제 곧 현내기라니...☆ 그래도 정말 의미 있는 한해였다. 지정 짱짱!

1414013 민예진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아쉽고, 남은시간 더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414015 박은주 얼마남지 않은 1학년 생활 열심히 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동기들과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1414016 박지은 모두 2학기 잘 보내고! 학교생활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서 좋습니다.

1414017 성동현 배울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다. 한층 더 성숙해진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1414018 성하림 지정에 있어서 좋아요! 과친구 재밌고 정이 넘쳐여♥

1414019 송명신 꿈꾸던 대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도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싶다.

1414020 안성훈 1학기 때보다 배울 것이 많아져서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414021 오지훈 벌써 1학년이 다 끝나가서 아쉽다. 아직 이름, 얼굴 다 못 외웠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좀 사람들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1414022 우다연 지정 파이팅♥ 학교 행사는 많으면 많은 대로 피곤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서운한 것 같다. 축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ㅠ_ㅠ

1414024 유예민 학교 갈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많이 배운 것 같다.

1414025 윤예원 학교는 가까워야 좋다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달았다. 이제 2학기도 되었으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1+1=2
3x6=18

1414026 윤지훈 지각과 결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가끔 빠지지만 그래도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성실해졌으면 좋겠다.

1414027 이나마 뒤틀터♥ 다릉해♥

1414028 이민기 남은 2개월 열심히 생활합시다.

1414029 이재석 1학년도 이제 끝나가고 민간인 생활도 앞으로 조금이니, 얼마 안남은 새내기 재밌게 놀아야 이득!

1414030 이정민 벌써 20살이 끝나가는 것이 아쉽다. 또, 20살에 못해봤던 것이 너무 많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알차게 살고 싶다! 그리고 우리과 애들 무도 너무 재밌고 좋아서 대학교 1학년 생활을 잘 끝낸 것 같다.

1414031 이정윤 나도 그렇다!

1414032 이지민 2시간...왕복 4시간 거리를 매일같이 다니다보니 정말 힘들었다. 2학기 성적 잘 받고 싶다.

1414033 이지아 벌써 2학기 되고 내년이면 21살이라는 것이 슬프다ㅠㅠ 남은 기간 동안 재미있게 생활해야겠다!

1414034 임지숙 남은 2개월간 잘 부탁혀

1414035 정기영 학기 초에는 여러 가지 행사도 많아서 즐거웠지만 지금은 없어서 섭섭한 것 같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재미있는 대학생활이다.

1414036 정아빈 1교시 수업이 많아서 졸리긴 하지만 친구들과 학교생활 재밌게 보내서 좋아요~ 남은 2학기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1414037 정우호 1학기 망쳤으니 2학기 만큼은!!!

1414038 정은음 벌써 2학기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남은 학기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다.

1414039 조현호 학교운동장이 없어져서 여가시간 때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 2학기 때부터 전공을 잘 살려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1414041 최선아 무사히 이번 해를 지내고 있어서 기쁩니다. 집밥 먹고싶어요!

1414044 최희정 영원히 20살 이었으면 좋겠는데ㅠㅠ 남은시간 동기들과 선배님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다. 지정 짱~☆☆

1414045 한다연 한 학기가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많은데 2학기는 다들 더 재밌고 알찬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1414046 황수정 수업이 많은 날은 지치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수업도 많고 좋아요~ 중간 중간 공강이 많지만 교수님들, 수업들 잘 선택한 것 같아서 2학기 만족해용

1414047 황아영 조금 있으면 벌써 21살이다. 벌써... 앞으로도 동기들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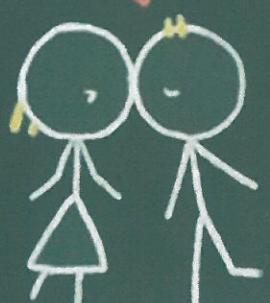
1414048 김민규 1학기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노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다. 2학기에는 스펙을 위한 공부나, 경험을 위한 여행같은 것을 계획하고 싶다.

1414049 김숙진 한 것도 없이 1학기를 보냈는데 2학기 때는 알차고 의미있게 보내야겠다.

1414050 김재지 1학기때는 동기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았다. 2학기때는 수업 열심히 듣고 다른 과 동기들과도 친해질 것이다.

1414051 김예진 1학기때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2학기때는 알찬 시간을 보내고 싶고 열심히 학교를 다녀야겠다.

1414052 김인영 1학기때보다 더 알찬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다른 활동들도 하고싶다.



1414053 김지은 1학기 시작해서 수강신청 걱정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학기라니 시간이 너무 빠른것같다 T 축제를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남은 1학년! 재밌게 보내고 싶다 ㅎㅎ

1414054 김태호 1학기때는 별다른 활동 없이 보냈다. 그래서 2학기 때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른 하고 싶은 활동도 찾는 노력을 해야겠다.

1414055 김예림 열심히 학교다니고 싶지만, 빨리 2학기가 지나가면 좋겠다. 그래도 한 학기가 끝날 때 즈 되돌아볼 때 뿌듯한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생활하고 싶다.

1414056 박태원 벌써 한 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했는데 열심히 학교를 다녀야겠다.

1414057 박하연 시간이 너무 빠리가 학교 생활도중 더 하지 못한 것이 많아 아쉽기도 하지만, 언제 이렇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정말 즐거웠던 것 같다.

1414058 배경옥 1학기때는 수업과 학점에 신경을 쓰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 아쉬웠다. 이번학기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내며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1414059 배정현 벌써 한 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했는데, 열심히 학교를 다녀야겠다.

1414060 서정덕 곧 있으면 2학기마저 끝날 텐데, 친구(동기)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다. 군대 가기 싫다 TTT. 여러분 저를 잊지마요!

1414062 신소정 학교축제를 안 해서 아쉽고 학교생활에 더 참여해보고 싶다!

1414064 양지원 벌써 1학년이 다 가네요 TTT 4학년 졸업이 정말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남은 삼년도 즐겁게 같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414065 여동은 지식정보학부 14학년! 정말 좋아요! 과 전공보다 동기들이랑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ㅋㅋ 처음에 O.T하고 수강신청 처음 하던 때가 진짜 어제 같은데 조금 있음 2학년이네요 TTT

1414066 유재경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학교생활 열심히 즐겁게 마무리해요~

1414067 윤유정 벌써 가을이 오는지,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많이 걸리는 거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학기 동안 학교 열심히 다녀요~

1414068 윤지현 입학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학기가 되었고, 2학기도 벌써 반 정도 지났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번 학기는 2학기 때와는 다르게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1414069 이가는 지식정보학부 전공공부는 매우 힘들지만, 동기들과 노는거 재미있어요ㅎㅎ 예전엔 술 자주 마셨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많이 못 마셔요 TTT 젊어지고 싶어요~

1414070 이강현 전공은 어렵고 적성에 안맞지만, 학교 생활은 좋습니다. 감사하게 학교다니요~

1414073 이유정 대학 입학 후 1학기는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다. 학교를 다니면서 내 미래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학점도 잘 따고, 동기들, 선후배들과 좀 더 친해지고 싶다.

1414074 이재혁 지식정보학부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도 정말 개성있고 선배님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수시 떨어졌어도 다시 왔을 것 같네요 ㅎㅎ

1414075 이주연 학교 다니면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 잘 만난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 학교가 공사 중이라서 학교생활에 아쉬운 점이 많지만, 남은 2학기 더 열심히 놀꺼예요~!

1414076 이지은 대학교에 입학한지도 엇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됐네요. 남은 2014년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학점 관리도 잘 해서 내년에는 꼭 교환학생도 가고 싶습니다! 다들 화이팅~

1414077 전현경 2학기 때도 좋은 강의 듣게 된 것 같아 1년을 잘 보낼 것 같다.

1414078 정현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다니다 보니 1학기가 훌쩍 지나가서 2학기는 좀 더 신경써서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지난학기보다 전공수업이 혼란스럽고 힘들다. 학교가 작다보니 시설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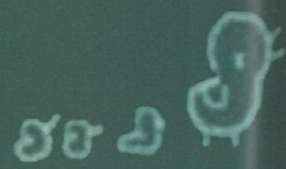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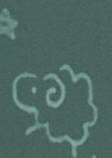
1414079 정혜원 학교가 좁아서 아쉽지만 있을 것은 다 있으니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도 못해서 아쉬워요. 아쉬운 것이 많지만 학교생활 재미있게 해요!!

1414080 최연정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나서 기분 좋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공이 나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이다. 그래도 주어진 과목과 환경에 최선을 다 하고 앞으로 두 달 반 정도 남은 학교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

1414081 최경민 입학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14년이 3달도 안 남았다. 1학기에 열심히 재밌게 놀았으니까 남은 2학기에도 열심히 놀아야겠다!

1414082 최준 다 같이 논술 알았는데 혼자 학점 망해서 놀랐어요. 전공보다 교양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ㅎ 남은 학기는 지각이라도 줄일 생각입니다.

1414083 황재은 입학해서 좋은 동기들을 만나서 좋고, 2학기때 공강이 생겨 기분이 좋다. 또 들어오자마자 공사가 시작된 것이 많이 아쉽다. 2학기 때는 1학기 때보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13 권정여(편집국장)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편집국은 2014년 그림비를 준비하였고 마침내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비를 준비하는 동안 곳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튀어나오는 기사들을 발견하면서 기쁘기도 했었고, 더 나은 디자인으로 편집하고자 노력하는 편집국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또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이것을 어떤 것으로 채워야할까' 막막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우여곡절 가운데에서도 그림비를 더 재미있고 예쁘게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준 편집국원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리 과제가 많아도, 시험기간이어도 끝까지 책임감있게 활동해준 편집국원들-유진이, 아영이, 주영이, 정민이, 다현이, 투지은, 태호, 형민이- 정말정말 고마워!! 힘들고 귀찮은 일이 많아도 정말 열심히 일한 부국장 우연오빠!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림비 여는글을 써주신 박지영 교수님,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지식정보학부 학우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길이남을 편집국은 그림비가 더욱 재미있고, 읽고 싶어지는 지식정보학부의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림비가 얼마나 더 재미있어졌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 2015년 그림비에도 뜨거운 호응 잊지마세요:D



11 조우연(편집부국장)

1년전에 편집부의 일원으로서 편집후기를 남겼었는데, 이제는 편집국 부국장으로서 편집후기를 다시 쓰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빴던 것 같네요. 처음엔 국장인 정예와 편집국을 맡게 되었을 때, 어떻게 14 후배들과 편집국을 이끌어 나갈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전 편집부 부-차장이었던 청수와 보라가 남기고 간 그림비와 각종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진 비법 노트가 그 고민들을 덜어낼 수 있었네요. 그리고 기사작성을 위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학우 여러분들과 여는 글을 써주신 박지영 교수님, 기사 소재를 제공해주신 조교님들께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특히 편집하는 과정이 길어 많이 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원들의 결과물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주고, 국장의 역할을 열심히 한 정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더불어 기사 작성 및 편집 과정이 귀찮고 힘든 부분이 있었을텐데, 묵묵히 잘 따라와준 우리 편집국원들 고생했다. 내년에는 주영이와 아영이가 편집국을 이끌어 갈텐데 국원들이 많이 도와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기사팀의 장을 맡았었는데요, 글쓰는 실력이 그리 훌륭하지가 않은지라 그림비를 읽게 되는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집국원 모두가 힘써서 만든 결과물만큼 부족하더라도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안유진(기사)

두번째로 입하는 편집국원으로서 또 그림비를 만들고 이름을 올릴 수 있어 영광이다! 이번 후배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그림비 역사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처음 시작할 땐 언제나 그러하듯이 페이지들을 무슨 내용으로 채울까 근심했지만 아무래도 다들 완성하겠다는 마음가짐이나 성실성동이 이번 14년도 그림비를 완성케 한것 같다. 같이 한 후배들도 너무 고생했고 국장부국장님들도 너무 너무 수고하셨어요~~♡♡

솔직히 편집팀에 들어오게 된 후 포토샵을 처음 다루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막막하게만 느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디자인 생각을 하면서 편집을 해나가니까 처음보다 더 나아지는 것 같았고 기사 하나하나 편집 후 완성된 모습을 보면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기 편집국 국장으로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부국장인 아영이와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열심히 편집국 활동을 하겠습니다!



14 강주영(편집)

편집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때도 편집하는 부서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기사 파트를 담당했었는데요. 주로 기사를 읽기만 했지 직접 작성하는게 어색하고 낯설어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인터뷰를 하면서 선배님들도 알게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가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부족했는데도 알려주시고 기다려주신 편집국 국장,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14 김지은(기사)

학교에 들어와 처음 시작한게 편집국이였다. 여기에 와서 기사도 써보고 하는 등의 활동을 했는데 나름 재밌는 1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1년동안에 한 활동이 그림비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그리고 내년에 15학번의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는데 그들과 함께 편집국도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 편집국 화이팅!!



14 김태호(기사)

편집국 활동을 통해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포토샵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포토샵을 다루지 못해서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기사에 맞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막막했었고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이런 힘든 과정을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도움 덕분에 그림비를 잘 마친 것 같아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든 과정을 거친 그림비가 드디어 완성되니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모든 편집국원들이 정성을 깃들인 그림비를 지식정보학부 학우분들과 교수님들 모두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국 활동 덕분에 동기들과 선배님들과 더 친해진 것 같고 재밌는 대학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일년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4 이정민(편집)



14이지은(기사)

처음으로 직접 쓴 기사도 만들어보고 책자에 실어도 보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편집국 활동을 하면서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더 친해지고 재밌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년 동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림비가 드디어 완성되다니 너무 뿌듯합니다~~♡ 다들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도 후배님들과 즐거운 집부활동 하고 싶어요! 편집국 사랑합니다당♡



14최형민(편집)

어느 부서에 지원할지 고민하던 때가 선명한데 벌써 편집후기를 쓰고 있다. 처음 편집국에 들어와 기사편집을 하려는 생각을 하니 막막했다. 하지만 선배님이 직접 시간을 내어 포토샵도 가르쳐주시고 오래 걸리긴 했지만 배운대로 차근차근 열심히 하다보니 글밖에 없었던 기사가 내가 디자인한 기사가 되고 그림비에 실려질 생각을 하니 너무 뿌듯했다. 나의 편집기사가 실려진 그림비를 빨리 보고싶다.



14황아영(기사)

벌써 이렇게 편집후기를 써야할 때가 오다니.. 감회가 새롭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다. 집부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경험들을 했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갖게 되었다. 글 쓰는 것을 싫어하는 내가 편집국에 들어올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나에게 주어지는 기사들이 부담스러운 과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과 안팎에서 일어나는 행사, 소식들을 글로써 엮어내는 활동이 정말 좋았다. 아직도 많이 미숙하지만, 글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다! 2014 그림비에 내 이름이 새겨진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신기하면서도 뿌듯하다. 그림비를 빨리 보고 싶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한다연(기사)

먼저 다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 사실 처음에는 집부활동을 할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활동을 하다보니 편집국을 통해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집부활동으로 선배님들이나 평소에 마주칠 일이 거의 없던 학우들과 교류가 쌓여서 좋았습니다. ㅎㅎ 전반적으로 좋은 기분만 가지고 마무리하게 되서 너무 만족스러운 1년의 집부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온 결과만큼 그림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

발행정보

편집국장 : 13권정예

편집부국장 : 11조우연

편집국원 : 13안유진, 14강주영, 14김지은, 14김태호, 14이정민, 14이지은, 14최형민, 14황아영, 14한다연

발행일 : 2014년 11월 27일

발행처 : 지식정보학부 '길이남을 편집국'

발행인 : 권정예



14이지은(기사)

처음으로 직접 쓴 기사도 만들어보고 책자에 실어도 보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편집국 활동을 하면서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더 친해지고 재밌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년 동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림비가 드디어 완성되다니 너무 뿌듯합니다~~♡ 다들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도 후배님들과 즐거운 집부활동 하고 싶어요! 편집국 사랑합니다당♡



14최형민(편집)

어느 부서에 지원할지 고민하던 때가 선명한데 벌써 편집후기를 쓰고 있다. 처음 편집국에 들어와 기사편집을 하려는 생각을 하니 막막했다. 하지만 선배님이 직접 시간을 내어 포토샵도 가르쳐주시고 오래 걸리긴 했지만 배운대로 차근차근 열심히 하다보니 글밖에 없었던 기사가 내가 디자인한 기사가 되고 그림비에 실려질 생각을 하니 너무 뿌듯했다. 나의 편집기사가 실려진 그림비를 빨리 보고싶다.



14황아영(기사)

벌써 이렇게 편집후기를 써야할 때가 오다니.. 감회가 새롭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다. 집부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경험들을 했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갖게 되었다. 글 쓰는 것을 싫어하는 내가 편집국에 들어올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나에게 주어지는 기사들이 부담스러운 과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과 안팎에서 일어나는 행사, 소식들을 글로써 엮어내는 활동이 정말 좋았다. 아직도 많이 미숙하지만, 글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다! 2014 그림비에 내 이름이 새겨진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신기하면서도 뿌듯하다. 그림비를 빨리 보고 싶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한다연(기사)

먼저 다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 사실 처음에는 집부활동을 할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활동을 하다보니 편집국을 통해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집부활동으로 선배님들이나 평소에 마주칠 일이 거의 없던 학우들과 교류가 쌓여서 좋았습니다. ㅎㅎ 전반적으로 좋은 기분만 가지고 마무리하게 되서 너무 만족스러운 1년의 집부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온 결과만큼 그림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

발행정보

편집국장 : 13권정예

편집부국장 : 11조우연

편집국원 : 13안유진, 14강주영, 14김지은, 14김태호, 14이정민, 14이지은, 14최형민, 14황아영, 14한다연

발행일 : 2014년 11월 27일

발행처 : 지식정보학부 '길이남을 편집국'

발행인 : 권정예

길이남을 편집국

지식정보학부 31대 학생회 지樂퍼樂

HANSUNG UNIVERSITY

2014 지식정보학부 소식지

그림비

'그림비'는 순우리말로 청년, 젊음이입니다